

2017년 설

못 동물에게는 귀소본능이 있다고 한다. 자기가 살던 곳 또는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다는 뜻이리라. 그래서 그러한지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서는 나이가 들면서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근래에 많이 생겨난다고 한다. 이를 귀소본능이라고 하기는 너무나 단적인 생각이지만, 전혀 그러한 성격이 없다고 하는 것도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어찌 귀소본능이 고향이라거나 고국이라는 장소에 국한 할까. 어릴 때 익혔던 맛, 향기, 색, 소리 등 수없이 많은 무형의 세계에서 조차 우리는 귀소본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스스로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향을 등진 정도가 아니라 고국을 떠나고 그리운 친인척 또는 지인으로부터도 떨어진 이민자들에게는 온 가족이 모이고 친인척을 찾아보는 요즘 같은 특별한 명절 때가 되면 마음은 벌써 내 나라 내 고향으로 가 있고 친인척과 지인들을 만나고 있다. 덕담을 주고받으며 이웃의 부족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먹던 시절로 잠시나마 되돌아갈 수 있는 그리운 계절이다.

어릴 적부터 드나들던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자극하는 맛 들여진 향기, 현관을 들어서기도 전에 들려오는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리운 소리, 언제부터인가 한 자리를 지키고 있던 눈에 익은 정든 물건들, 어느 하나 가슴을 찡하게 하지 않는 것이 없다. 기계처럼 움직이던 육신에 고동치는 가슴이 아직 나에게 남아 있음을 느끼게 하는 풍광이요 따스함이다. 점점 각박해 지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계가 되는 것조차 주저하지 않은 나에게 아직도 내가 인간임을 가슴은 온기로서 나를 자극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나 스스로가 고향상실자가 되어 낯선 세계에서 떠돌고 있었음을 알리는 두근거림이리라.

어찌 삶이 그리운 사람과의 만남만 있을까 만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한 때에 한자리에 모여야 하는 인연이란다면, 그 동안 소원했던 서로의 관계는 반드시 화목해 질 수 있다는 숙명적인 만남일 것이다. 살기위해 저질렀던 많은 후회들에 발걸음을 잡히지 말고, 가야할 곳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떼어야 한다. 한 발짝이라도 떼어낸 발자국은 급기야 점점 더

빨라진다. 발걸음이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는 각박한 사회에서 나를 기다려 주는 집이 있고, 그 곳에는 나를 반겨 줄 사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붓다의 가르침을 인생향로의 나침판으로 삼는 불자들에게는 사원이 또한 돌아가야 할 고향이요, 때가 되면 발걸음을 옮겨야 할 귀의처가 될 것이다. 명절이 되어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불자들에게는 사원이 무형의 고향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다. 벗어버리고 싶은 묵은 업보를 내려놓고 그동안 소원했던 지인과의 관계도 명절이란 좋은 시절이 보광사에서 원만히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광사가 많은 불자들에게 좋은 수행처가 되어야하겠지만 또한 이민 불자들의 고향처럼 그립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이곳에서 상주하는 수행자로서 불전에 기원하는 바이다.

보광사 주지 화공 합장

ps. 설 차례 상과 정월보름 법회를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하오니 가까운 지인들과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 * 1월22일 넷째 일요일 합동차례
- * 2월5일 첫째 일요일 오곡밥 대중공양



대한불교 조계종 포틀랜드 보광사
1921 SE 174th Ave. Portland OR 97233
전화: 503) 760-4497
www.bokwangsah.org